

# 최근 노동시장 동향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

오상봉(한국노동연구원 노동시장분석센터 소장)

- ◎ 10월 취업자 수가 전년동기대비 34만 8천 명 증가
  - 고용률은 60.9%로 전년동기와 동일하지만 15~64세 고용률은 66.2%로 전년동기 대비 0.5%p 상승
- ◎ (특징) 10월의 고용동향은 다음과 같음
  - 20대의 증가폭 확대와 50대 이상의 취업자 증가 지속
  - 상용직 증가폭 확대 및 자영업자 감소폭 크게 확대
  - 제조업, 음식숙박업, 방송통신업, 사업관리·지원업 취업자 증가 및 농업부문과 도 소매업, 금융업의 취업자 감소 지속
- ◎ (인구 변화) 생산가능인구는 전년동기대비 50만 4천 명 증가했음, 그중 경제활동인구는 32만 8천 명 증가했고, 비경제활동인구는 17만 6천 명 증가했음
  - '쉬었음'과 '연로'의 이유로 증가한 비경제활동인구는 12만 7천 명과 18만 명임
  - 취업준비의 이유로 증가한 비경제활동인구는 8만 2천 명이지만, 정규교육기관 및 입시학원 통학을 이유로 감소한 비경제활동인구는 18만 1천 명이었음
- ◎ (연령대) 전체 취업자 수의 증가는 50대 이상과 청년에 의해 주로 이루어졌지만, 50대 이상의 취업자 증가세는 조금 위축된 양상임

-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50세 이상 연령층에서 취업자 수가 26만 1천 명 증가(50대 12만 5천 명, 60세 이상 13만 6천 명). 50대 취업자 증가세 위축은 제조업 및 건설업 종사자 증가세 위축의 영향이 크며 도소매업 종사자 수 감소의 영향도 있음
  - 청년층 취업자 수는 10만 1천 명 증가. 15~24세 증가는 재학생의 지속된 취업 증가의 영향임
  - 30, 40대는 인구 감소에 따라 취업자 수도 감소하거나 증가하지 않고 있는데, 증가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남성 취업자가 감소하기 때문임. 40대 도소매업 종사자 수 감소가 매우 큼
- ◎ (종사상 지위) 상용직의 취업자 증가가 확대되면서 전체 취업자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데,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의 감소폭이 크게 확대
- 상용직은 56만 5천 명이 증가. 상용직 증가는 40대 이상에서 일어났는데, 특히 최근 40대 상용직 증가가 매우 큼. 업종별로는 제조업(18만 3천 명), 음식숙박업(6만 1천 명), 출판·영상·방송·통신업(6만명), 교육서비스업(7만 1천 명)이 주도하였음
  - 임시직은 10만 1천 명 증가. 업종별로는 음식숙박업에서는 증가하였지만(4만 2천 명), 도소매업에서는 감소하였음(5만 4천 명)
  - 일용직은 8만 2천 명 감소.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에서는 증가했지만(3만 3천 명), 건설업과 음식숙박업, 협회 및 단체,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감소하였음
  -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감소로 전환(2만 3천 명)
  -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큰 감소 지속(13만 6천 명). 40대 이상은 지속적으로 감소. 농림어업에서 7만 9천 명 감소
  - 무급가족종사자의 감소폭은 축소(7만 6천 명)
- ◎ (업종) 제조업의 증가세는 계속 유지되고 있지만,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증가폭 확대로 전환되었으며, 농림어업의 취업자 수도 감소세 지속
- 제조업은 19만 1천 명 증가. 제조업 취업자 수는 주로 상용직(18만 3천 명) 일자리로 중소기업에서 많이 증가. 식료품 제조업, 금속가공제품 제조업, 자동차 및 트레

- 일리 제조업에서 취업자 증가가 큼. 연령별로는 주로 40대와 60대 이상의 증가가 큼
- 서비스업은 29만 2천 명 증가. 주로 상용직(37만 4천 명) 일자리에서 증가
    - ※ 사업시설관리·지원업 및 방송통신업, 음식숙박업, 보건복지업의 증가세 지속
    - ※ 교육서비스업과 공공행정은 증가로 전환
    - ※ 도소매업의 취업자 감소 확대 및 금융보험업에서 취업자 감소 지속
  -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12만 4천 명 감소
  - 건설업은 2만 7천 명 감소. 건설업 경기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수가 감소

### 최근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

- ◎ 2015년 1~8월 평균 명목임금(3,245천 원)은 전년동기대비 3.1% 증가. 실질임금은 2.5% 증가
  - 8월 임금증가율이 둔화된 것은 2014년 추석이 9월 초에 있어서 8월 급여에 추석상여금(특별급여)이 포함되었기 때문임
  - 상용근로자의 1~8월 평균 정액급여가 3.1% 상승에 그치고 특별급여가 감소하면서 초과급여 상승에도 임금총액(3,426천 원)은 2.8% 상승에 그침
  - 임시·일용근로자의 1~8월 평균 임금총액(1,416천 원)은 전년동월대비 1.9% 증가
  - 전체 임금인상률이 상용근로자 임금인상률과 임시·일용근로자 임금인상률보다 높은 것은 전년에 비해 상용근로자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
  - 9월까지 협약임금인상률은 4.1%(진도율 59.3%)로 이전 연도와 비슷함
- ◎ 2015년 1~8월 평균 근로시간(172시간)은 전년동기대비 0.4%(0.7시간) 증가
  - 상용근로자의 1~8월 평균 근로시간은 177.7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.5% 증가
  - 비상용근로자의 1~7월 평균 근로시간은 114.9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2.8% 감소
  - 8월 근로시간 2.7시간 증가는 월력상 근로일수 1일 증가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임. 다만, 임시공휴일을 휴일로 보면 근로일수는 같음